형제간 및 또래간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 인구학적 변인*

Family-Demographic Variables Affecting Sibling Sociability and Peer Sociability

김 상 희**
Kim, Sang Hee
박 성 연***
Park, Seong Y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mily-demographic varaibles (sibling status, maternal attitude, and demographic variables) affecting sibling sociability and peer sociability. Mothers and teachers of 291 kindergarten children were sampled. Specifically, 206 children of two-child families were studied by sibling statu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sociability among siblings. Factor analysis, F-test,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analysis of variance were conducted.

Sibling sociability and peer sociability were affected by sibling status. Maternal attitude and sibling sociability were positively correlated. The important family-demographic variables for both sibling sociability and peer sociability were maternal affective attitudes and sex of child.

1. 서 론

A.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아동은 그가 소속된 가정환경 안에서 가족원의 관심과 지도를 받으면서 사회성이 발달되는데, 가족원 중에서도 아동과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하는 어머니의 영향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어머니의 영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는 다른 가족원의 영향, 즉 아버지와 형제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형제는 부모가 제공할 수 없는 다른 측면에서 아동의 정서적, 지적, 사회적 행동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Mussen, Conger & Kagan, 1979; Smart & Smart, 1967)는 점에서 형제의 영향력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아동은 갓난아이 때부터 같은 연령의 또래집단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나타나서 낯선 성인보다 낯선 또래아동과 쉽게 친숙해진다(Perry & Bussey, 1984). 아동이 또래친구에게 나타내는 사회성은 특히 또래가 형제보다 연령의 차이가 거의 나지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따라서 그들의 놀이는 형제와 달리 대

* 1989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임.

** 공주대학 가정교육과 조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등한 놀이역할을 나타낸다(Brody, Stoneman, & Mackinnon, 1982).

오늘날 사회의 변화와 함께 핵가족화 되어 가고 자녀의 수도 소수로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면서 아동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폭이 축소되어 상대적으로 형제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한편, 조기교육의 실시로 아동이 일찍부터 또래집단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아동에게 미치는 또래의 영향도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미국 등지에서는 형제와 또래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형제간과 또래간에서 나타나는 사회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외에서 이루어진 형제와 또래간의 사회성에 대해 아직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연구결과들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재검토하여 아동의 형제간과 또래간의 사회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목적은 학령전 아동의 형제간 및 또래간 사회성에 나타나는 형제의 구성형태(성구성 형태, 출생순위 구성형태, 연령 구성형태),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인(아동의 연령, 아동의 성, 아동의 유치원 이전 교육경험,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조, 주거형태, 부의 직업수준)의 효과를 밝히고, 아동의 사회성에 이들 가족인구학적 변인(형제의 구성형태,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인)중 중요하게 영향을 갖는 변인은 어떤 변인인지를 밝혀내며, 형제간과 또래간의 사회성간에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B. 연구문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연구문제1. 형제간 사회성 및 또래간 사회성은 형제의 구성형태(형제의 성구성형태, 아동의 출생순위, 형제간의 연령터울)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인가?

연구문제2. 형제간 사회성 및 또래간 사회성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인가?

연구문제3. 형제간 사회성 및 또래간 사회성은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인(아동의 연령, 아동의 성, 아동의 유치원 이전 교육경험,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조, 주거형태, 부의 직업수준)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인가?

연구문제4. 형제간 사회성 및 또래간 사회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가족인구학적 변인(형제의 구성형태,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어떤 변인인가?

연구문제5. 형제간 사회성과 또래간 사회성간에는 상관이 있을 것인가?

Ⅱ. 선행연구의 고찰

A. 형제간 및 또래간 사회성 연구

형제가 아동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경쟁적인 대상으로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촛점을 맞추던 것에서 이제는 점차 부모가 제공할 수 없는 형제가 갖는 중요한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Baskett & Jonson, 1982).

즉, 아동은 형제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아동이 긍정적, 부정적 사회행동을 하는데 형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yant & Crockenberg, 1980). 특히 핵가족에서 형제는 서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경쟁심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서로에 대한 질투심을 낳아서 심하게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거

나, 혹은 한 형제가 갈등을 겪기도 한다(Smart & Smart, 1967). 그러나 형제간의 상호작용에서 이뤄지는 풍부한 인간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아동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관심한 것을 대신해서 형제가 보충적인 관심과 이해를 제공해 주며, 효과적인 교사로서 형제의 문제나 처한 상황을 부모보다 더 잘 이해해 주고, 동료로서 함께 놀므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하여 주며(Irish, 1964),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는 데에도 형제는 도움을 제공한다(Samuels, 1980). 한편 또래는 아동의 사회적 동등체로서 현대사회의 변화와 함께 아동이 점점 더 어린 나이에 또래집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또래집단의 중요한 역할에 학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Perry & Bussy, 1984). 아동의 사회화에 또래는 큰 영향력을 갖는데 즉 친구를 만들고, 유지하고, 또래집단에 수용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케하는 중요한 존재로서(Hatch, 1987)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성격적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또래는 아동의 강화자로서 아동이 또래를 좋아한다는 표시로 말이나 신체적 접촉을 낳게하고, 또래를 모델로서 아동은 또래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따르거나 모방을 하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할 뿐아니라, 또래를 준거로서 아동의 행동, 능력, 외모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Perry & Bussy, 1984). 그러므로 또래는 아동의 모델이며 강화와 벌의 대리인이고 내적 자기규제시 비교기준을 제공하여 아동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행동적인 단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아동기의 만족스러운 또래관계는 아동이 적절한 사회적 적응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Slee, 1986).

B. 형제간 및 또래간 사회성에 관련된 변인

1. 형제의 구성형태 변인

형제간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제의 구성형태는 크게 형제의 성구성, 출생순위 및 연령터울의 세 변인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형제는 형제 각자의 출생순위에 따른 역할이 분담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기대되어지는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서(Ernst & Angst, 1983) 윗형제는 교사로서 동생은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bramovitch, Corter & Lando, 1979; Abramovitch, Corter & Pepler, 1980; Abramovitch, Corter, Pepler & Stanhope, 1986; Knight, 1982).

한편, 형제의 성에 따른 형제간의 사회성은 형제간의 성구성 형태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혼성간보다 동성간에서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그중에서도 자매간에서 가장 친근감을 느끼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면, 혼성간은 모방행동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감소한다. 이것은 성유형화에 대한 흥미와 행동의 증가에 기인하며 어머니가 혼성아동을 대할 때 덜 일관적으로 대하기 때문이라고(Bowerman & Dobash, 1974)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형제간의 연령터울에 따른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Bossard와 Boll(1966)은 연령차이가 없으면 유사한 신체적 조건과 환경 안에서 유사한 흥미를 가지므로 서로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고 그들간에 생기는 경쟁의식도 후에 사회생활을 할 때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White (1975)는 형제간의 연령터울이 적을수록 동생의 출생으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므로 형제간의 관계가 부정적이 되기 쉽다고 한 반면, 연령터울이 클수록 형제간에 우호적, 협동적, 애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Hurlock, 1975)고 하였다. 특히 연령터울이 4년 이상인 경우는 형제의 공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사회적으로 잘 적응한다고 하여(Snow, 1981) 대체로 연령터울이 큰 경우가 적은 경우보다 형제간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bramovitch외 2인의 세차례 연구와(1979, 1980, 1981)후속연구(Abramovitch, Corter, Pepler, & Stantope, 1986)에서는 연령터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김상희(1983)는 형제간의 각 행동항목에 따라 부분적인 연령터울의 효과를 밝히고 있어 연령터울의 효과에 대한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한편 또래간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제의 구성형태도 크게 성구성형태, 출생순위 및 연령터울의 세 변인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주로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또래간 사회성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즉 출생순위의 효과에 따른 또래간 사회성을 설명하는데는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첫번째 견해는 부모는 외동아나 맏이에게 타인과의 접촉을 탐색하는 행동을 하도록 더 강화를 해주지만 둘째 이후의 아동은 신체적으로 지배적인 손위 형제에게서 느꼈던 불안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또래에게 더 소심하며 위축되어 있어서 외동아나 맏이가 둘째 이후의 아동보다 더 사교적이라고 보는 견해이고, 두번째 견해는 출생순위가 늦은 아동은 윗형제와의 관계를 통해 아동과의 경험을 많이 가졌고 또래간 상호작용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많이 가진 반면, 외동아와 맏이는 가정에서 주로 성인과 상호작용을 하였기 때문에 또래간 상호작용이 낯설어서 더 위축되었다는 견해이다(Snow, 1981).

이밖에 형제간의 성구성 형태 및 연령터울이 또래간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살펴볼 수 없었다.

2. 부모의 영향

부모는 자녀중 어느 한 자녀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형제간 사회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타인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유아기의 아동은 부모가 형제에게 대하는 행동을 민감하게 파악하여 자신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비교하게 되는데(Bryant & Crokenberg, 1980), 윗형제의 경우 동생이 생김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랑의 손실, 독자로서의 지위의 손실등에 따르는 불안과 걱정이 부모의 편애적인 태도를 민감하게 느끼게 하고(Mussen, Conger & Kagan, 1979), 이에 따른 형제 서로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경쟁의식이 3-6세에 가장 민감하게 발달하여 형제간의 상호작용에 나타나게 된다(Jacob & Moss, 1976).

한편 부모는 아동의 또래간 사회성에도 큰 영향력을 가진다. 즉 자녀의 성에 따라 기대하는 역할과 행동이 다르며 이에 따라 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의 차이는 아동이 또래안에서 나타내는 사회적 능력과 말접하게 관계를 갖는다. 선행연구에 의하면(심숙희, 1987 ; 권옥자, 1987 ;박범실, 1987) 부모의영향중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사회성과 큰 상관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3. 인구통계학적 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중 형제간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의 연령에 따라 형제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Lamb (1978ab)이 12개월에서 18개월의 유아를 대상으로한 형제간 상호작용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고, 특히 Gesell, Ilg및 Ames(1977)도 5세 이후 집보

다 바깥에서 나타나는 형제간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였다. 아동의 성은 특히 3세 이후에 나타나는 성일관성(sex consistency)개념의 발달에 따라 성에 따른 형제간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고, 역할이론에 따라 여아들은 형제를 긍정적으로 느끼고 우호감을 가지면서 형제를 칭찬하고 지도해 주는 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반면, 남아들은 형제에게 경쟁의식을 느끼면서 중립적인 행동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빈번하게 나타낸다(Abramovitch, Corter, & Lando, 1979; Binger, 1974; Cicirelli, 1982; Minnett, 1983). 가족구조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Jiano, Ji & Jing, 1986).

한편 또래간 사회성을 살펴보면 나이가 많은 아동이 보다 오랫동안 그리고 빈번하게 또래와 접촉을 하며 안정적인 우정을 유지함으로써(Hatch, 1986)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또한 또래간 사회적 행동은 아동 자신의 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서 남아는 집밖에서 하는 행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 교환을 많이 하는 행동에, 여아는 의사전달과 정서적 영역에 높은 점수를 보였다(Berndt와 Bulleit, 1985; 윤은섭, 1987). 가족구조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남정자, 1985).

이밖에 형제간 사회성 및 또래간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아동의 교육경험, 부모의 교육수준, 주거형태, 부의 직업수준)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C. 형제간과 또래간 사회성의 연관성

Abramovitch와 그의 동료들(1986)의 연구와 Berndt와 Bullet(1983) 연구, Brody, Stoneman, 및 Mackinnon(1982) 등의연구에 따르면 아동이 형제간과 또래간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유사점과 차이점의 양면을 모두 내포한다.

즉 형제간은 또래간보다 더 유사하고 친숙하며 강한 신뢰감과 상호간의 이해심 때문에 형제간에 친밀감이 강해져서 일찍부터 서로에게 이타주의를 보여주며 이것이 아동의 놀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또래간에서도 친숙한 사이일 때는 상호작용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형제관계와 또래관계는 각각에서 갖게되는 역할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즉 형제간보다 또래간은 동등한 연령이거나 능력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평등적인 역할을 나타낸 반면, 형제간은 윗형제는 연령이 많음으로 독단적이 될 기회를 갖고 있고 지도자적인 역할을 가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에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비슷한 연령의 또래와 비교 할 때 연령의 차이가 나는 또래관계는 형제관계와 비슷하다. 즉 연령구성 자체보다도 파트너의 나이와 더 연관되어 아동의 사회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Rubin & Ross, 1982). 연령구성에 따른 역할은 비슷하여 나이많은 아동이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지시하며, 나이 어린 아동이 윗형제와 나이가 많은 또래친구 모두의 모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dy, Stoneman & Mackinnon, 1982). 그러나 성구성에 따른 형제간 상호작용 패턴은 또래간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이다(Abramovitch, Corter, Pepler & Stanhope, 1986).

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자

아동의 대인관계가 가족내의 부모와 형제에서 또래관계로 이행되는 과정에 해당되는 유치원 아동중 충남 K시와 D시에서 비교적 중류층의 자녀

가 다닌다고 생각되는 6개 유치원 9개 학급 291명의 아동이 본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들 중에서도 형제간의 사회성을 설명하고자 분석에 이용된 아동은 형제가 둘인 206명의 아동이었다. 이들 연구대상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형제간 사회성은 어머니가, 또래간 사회성은 교사가 각각 응답해 주었다. 아동의 연령은 평균 67.5개월로 남아가 148명(50.9%) 여아가 143명(49.1%)이었고, 형제의 수는 평균 2.2명이었으며, 유치원 이전 교육경험자는 66.3%이었다.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5.4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2.4세이었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상이 86.6%,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상이 77.6%이었다.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이 41.9%, 단독주택이 54.3%이었고, 가족구조는 확대가족이 31.6%, 핵가족이 68.4%이었다. 부의 직업은 자영상공업이나 자영기능직 이상이 85.2%이고 자기집 소유자가 63.2%로 대체로 중류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었다.

특히 형제가 둘인 206명의 아동들은 출생순위로는 첫째가 124명(60.2%), 둘째가 82명(39.8%)이었고, 성구성 형태는 형제가 63명(30.6%), 자매가 28명(13.6%), 오빠-여동생이 47명(22.8%), 누나-남동생이 68명(33.0%)이었다. 형제간의 연령터울은 23개월 이하가 93명(45.4%), 24-35개월이 72명(35.1%), 36개월 이상이 40명(19.5%)이었다.

B. 연구도구

1.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도구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도구는 Schaefer(1965)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를 번안하여 이원영(1982)이 사용하였던 도구를 가지고 응답자에게 배포하여 얻어진 결과를 배리맥스 회전방식에 의해 요인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이겐치가 1이상인 5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이것을 다시 이원영의 분류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영역을 추리고 내용이 다소 이질적인 영역은 제외하되 이원영의 분류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영역이더라도 내용상 같은 요인안에 분류될 수 있는 영역은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어머니의 양육태도 내용은 5개의 요인에 대한 21개의 영역이었으며, 각 영역은 4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질문의 수는 모두 84(21×4)개였다. 이들 5개 요인에 포함된 영역들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았다. 요인 1은 애정적인 태도로서 자녀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보살피는 태도와, 자녀의 흥미와 필요한 관심을 자녀의 입장에서 느끼고, 자녀와 함께 참여하며, 사랑과 칭찬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태도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자율적인 태도로서 자녀의 권리, 희망, 개성을 존중하며 스스로가 생각하고 처리하는 책임지는 습관을 격려하는 태도와, 자녀를 가족의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자녀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태도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3은 수용적인 태도로서 자녀교육을 부모의 중요한 일로 여기며 자녀의 잘못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정당한 벌을 내리는 태도와, 자녀에게 사랑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태도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4는 어머니의 외향적 태도로서 어머니가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태도와 사교적인 관계나 모임을 즐기는 태도, 남과 어울리며 협력하기를 좋아하는 태도 및 명랑한 태도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5는 독립심 권장 태도로서 자녀로 하여금 친구를 사귀거나 혼자서 행동하도록 격려해 주고 자유를 허용하는 태도들

과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집을 나서 혼자 행동하려고 할 때 이를 관대하게 보는 태도들로 구성되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내적 일치도에 의거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신뢰계수는.58에서 .78사이였다.

양육태도 점수의 계산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에 대한 점수는 그대로 계산하였고, 바람직한 태도일수록 1번에 답하게 된 문항에서는 1점을 5점으로, 2점을 4점으로, 4점을 2점으로, 5점을 1점으로 고쳐서 합산하였고, 합산된 점수를 각 양육태도 요인에 포함된 영역갯수에다 각 영역에 포함된 문항수 4를 곱해서나온 점수로 나누어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볼 수 있다.

2. 형제간 사회성 평가도구

아동의 형제간 사회성에 대한 평가도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아동의 사회성에 대한 참고문헌과 연구논문에서 이들이 사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이 도구는 형제가 둘인 아동의 어머니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집에서 그들 형제와 설문지에 있는 사회성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를 응답하도록 된 60개의 문항중 예비조사를 거쳐 선택된 3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회수된 형제간 사회성의 응답결과를 요인분석하여 6개 요인인 27문항만이 최종분석에서 사용되었다. 이들 6개 요인에 포함된 문항을 중심으로 형제간 사회성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았다. 요인 1은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태도로서 아동이 매사에 적극적이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탐색하는 태도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책임있는 태도로서 아동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최선을 다해 실행하고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태도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3은 우호적인 태도로서 형제에게 친절하며, 형제와 사이좋게 잘 노는 태도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4는 반이기적인 태도로서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로 구성되었으나 또래간의 반이기적이고 책임있는 태도중 반이기적인 내용의 부정적인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 모든 태도들을 긍정적인 점수로 고쳤으므로 요인 4를 반이기적인 태도라고 하였다. 요인 5는 용감하고 의지력있는 태도로서 용감하고 어려운 문제에 닥쳐도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6은 도와주는 태도로서 형제를 이끌어주고 도와주려는 태도들로 구성되었다.

형제간 사회성 평가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내적 일치도에 의거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신뢰계수는 .55에서 .76사이였다.

3. 또래간 사회성 평가도구

또래간 사회성 평가도구는 형제간 사회성 평가도구와 동일한 3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단지 교사가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학급의 각 아동이 유치원에서 또래친구와 설문지에 있는 사회적 태도들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를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한편 형제간과 또래간의 사회성 평가도구의 안면타당도를 위해서 유치원 교사 3명과 아동연구가 2명 및 유치원 원장선생님 1명등 6명의 의견을 듣고 문항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특히 또래간 사회성에 대한 교사간의 응답일치도를 살펴보고자 같은반 아동을 담당하였던 2명의 유치원 교사에게 20명의 아동을 각각 평가하도록 부탁해서 얻은 결과를 분석했는데,각 아동의 39문항에 대한 교사간의일치도는 .87에서 .99로 나타나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회수된 또래간의 사회성을 배리맥스 회전방식에 의해 요인분석하

여 5개 요인 31문항만이 최종분석에서 사용되었다.

이들 5개 요인에 포함된 문항을 중심으로 또래간 사회성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았다. 요인 1은 반이기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로서 자신의 욕심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참고 협조적이며 자신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최선을 다해 실행하고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태도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태도로서 매사에 적극적이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탐색하는 태도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3은 용감하고 의지력있는 태도로서 어려운 문제에 닥쳐도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4는 사교적인 태도로서 친구를 잘 사귀고 잘 유지하는 태도들로 구성 되었다. 요인 5는 우호적인 태도로서 친구에게 친절하고 친구와 잘 노는 태도들로 구성되었다.

또래간 사회성 도구의 신뢰도 검증 또한 내적 일치도에 의거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신뢰계수는 .67에서 .90으로 나타났다.

한편 형제간 및 또래간 사회성의 점수계산은 바람직한 태도일수록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부정적인 태도의 응답점수는 그대로 두고 긍정적인 태도의 점수는 1점을 4점, 2점을 3점, 3점을 2점, 4점을 1점으로 각각 고친 후 합산하였고 합산된 점수를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수로 나누어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사회성이고 특히 2.5가 중간값이므로 평균 점수가 2.5보다 높으면 긍정적으로, 2.5보다 낮으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나타난 형제간 사회성과 또래간 사회성은 각 요인에 따른 문항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공통으로 포함된 문항을 중심으로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유사한 내용의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을 붙였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태도, 우호적인 태도, 용감하고 의지력있는 태도 등의 3요인은 같은 명칭이 부여되었고, 형제간의 책임있는 태도와 반이기적인 태도가 또래간에서는 하나로 묶어져서 책임있고 반이기적인 태도가 되었으며, 형제간의 도와주는 태도와 또래간의 사교적인 태도는 내용이 상이하여 각각 다른 명칭을 붙였다.

이밖에 아동의 사회성에 관계된다고 생각되는 변인으로 아동의 유치원 이전 교육경험, 가족구조, 주거형태, 부모의 교육수준 및 부의 직업수준에 관한 질문들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도구 안에 포함되었다.

C.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본 조사의 자료수집은 1988년 4월 3일에서 22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양육태도 검사 설문지와 형제간 사회성 평가 설문지는 유치원의 교육프로그램중 하나인 부모교육 시간에 참석한 어머니들에게 연구자가 본 연구의 취지와 기입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직접 어머니에게 배포하여 그 자리에서 기입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351부를 배포하여 297부가 회수되었고(83%), 이중 응답내용이 극히 부실한 6부를 뺀 291부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는데, 특히 형제가 둘인 206명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또래간 사회적 태도 평가 설문지는 유치원 교사에게 배포하였는데 시간 경과에 따른 영향을 줄이고자 설문지는 동시에 배포 하였고 2주 이내에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351부를 배포하여 100% 회수되었다.

D. 자료분석

회수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SPSS-X Package를 사용하여 요인분석, 상관분석, 변량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도는 유의수준 .05이하에서 검증되었다.

Ⅳ. 연구결과

A. 형제간의 구성형태에 따른 형제간 사회성 및 또래간 사회성

1. 형제간의 구성형태에 따른 형제간 사회성

형제간의 구성형태(성구성, 출생순위, 연령터울)에 따른 형제간 사회성을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았다.

〈표 1〉 형제의 구성형태에 따른 형제간 사회성의 변량분석

(N=206)

형제의 구성형태	형제간 사회성					
	적극적이 고호기심 많은태도	책임있는 태도	우호적인 태도	반이기적 태도	용감하고 의지력 있는태도	도와주는 태도
성구성(SC)			3.10*			5.48**
출생순위(RA)	3.74*			11.46**	10.01**	9.19**
연령터울(AD)						
SC × RA	4.57**					
SC × AD						
RA × AD						

* p<.05 ** p<.01

〈표 1〉에서 보듯이 성구성의 효과와 출생순위의 효과가 형제간 사회성의 내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나타났다.

즉, 성구성의 효과는 우호적인 태도, $F(3)=3.10$, $p<.05$, 와 도와주는 태도, $F(3)=5.48$, $p<.01$, 에서 나타났는데 윗형제의 성에 따라 즉 윗형제가 여아인 경우(자매간과 누나와 남동생의 경우 우호적인 태도는 평균값이 3.17과 3.10이고, 도와주는 태도는 3.22와 3.03)가 윗형제가 남아인 경우(형제와 오빠와 남동생간의 경우 우호적인 태도는 평균값이 3.03과 2.83이고 도와주는 태도는 2.88과 2.83)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전 아동 형제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긍정적인 사회행동의 시작빈도가 자매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오빠와 여동생간에서 제일 낮게 나타난(1시간에 60.1 : 36회) 김상희(198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출생순위의 효과를 보면 반이기적인 태도, $F(1)=11.46$, $p<.005$, 와 도와주는 태도, $F(1)=9.19$, $p<.005$, 에서는 윗형제인 아동이 높은 점수를 보이고(3.02 : 2.78, 3.04 : 2.85), 용감하고 의지력 있는 태도, $F(1)=10.01$, $p<.005$, 와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태도, $F(1)=3.74$, $p<.05$, 에서는 동생인 아동에게(2.17 : 2.42, 2.99 : 3.

08)높은 점수가 나왔다.

한편, 성구성과 출생순위의 상호작용 효과는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태도에서만 나타났는데, $F(3)=4.57$, $p<.05$, 특히 누나와 남동생으로 구성된 아동의 경우에서만 출생순위의 효과가 나타나서, $F(1)=16.22$, $p<.001$, 누나와 남동생의 성구성을 가지면서 남동생에 해당될 때 누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비해(3.26 : 2.87)유의하게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태도를 높게 나타냈다.

2. 형제간의 구성형태에 따른 또래간 사회성

형제간의 구성형태에 따른 또래간 사회성을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았다.

〈표 2〉 형제의 구성형태에 따른 또래간 사회성의 변량분석

(N=206)

형제의 구성형태	또래간 사회성				
	반이기적이 고책임있는 태도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태도	용감하고 의지력 있는태도	사교적인 태도	우호적인 태도
성구성(SC)					
출생순위(RA)					
연령터울(AD)					
SC × RA	3.76*		4.68**		
SC × AD					
RA × AD					

* $p<.05$ ** $p<.01$

성구성과 출생순위의 상호작용의 효과만이 반이기적이고 책임있는 태도, $F(5)=3.76$, $p<.05$, 와 용감하고 의지력있는 태도, $F(3)=4.68$, $p<.01$, 에서 나왔다. 특히 반이기적이고 책임있는 태도에서는 아동이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 성구성에 따라 차이가 나와서, $F(5)=4.70$, $p<.005$, 자매, 누나와 남동생, 형제, 오빠와 여동생의 성구성 순으로 이뤄진 첫째 아동이 반이기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를 나타내서(3.16 : 3.09 : 2.99 : 2.74)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오빠와 여동생 및 누나와 남동생의 성구성에서 출생순위의 효과가 나타나서, $F(5)=8.98$, $p<.01$, $F(5)=5.76$, $p<.05$, (오빠와 여동생은 2.74 : 3.04이고 누나와 남동생은 3.09 : 2.84), 성구성이 혼성일 때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용감하고 의지력있는 태도에서의 성구성과 출생순위의 상호작용의 효과는 특히 오빠와 여동생의 성구성을 가진 아동의 경우에서 출생순위의 효과만 나타나서, $F(1)=7.55$, $p<.01$, 연구대상 아동이 오빠와 여동생의 성구성을 가지면서 오빠에 해당되는 경우 여동생에 해당되는 아동에 비해(2.82 : 2.52)용감하고 의지력있는 태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3〉 어머니의 양육태도 구성요인과 형제간 사회성 구성요인간의 상관관계 (N=206)

어머니의 양육태도	형제간 사회성					
	적극적이고 호기심 많은태도	책임있는 태도	우호적인 태도	반이기적 태도	용감하고 의지력 있는태도	도와주는 태도
애정적인태도	.41***	.41***	.28**			.22**
자율적인태도			-.15*	.17*		
수용적인태도	-.14*	.13*		.18**	.19**	
어머니의 외향적태도	.22**	.19**				.18**
독립심권장태도					.13*	

* p<.05 ** p<.01

B.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형제간 사회성 및 또래간 사회성

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형제간 사회성간의 상관관계

〈표 3〉에서 보듯이 형제간 사회성중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태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중 애정적 태도(r=.41, p<.001), 어머니의 외향적 태도(r=.22, p<.01)와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수용적 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14, p<.05). 형제간의 책임있는 태도는 애정적 태도(r=.41, p<.001), 수용적 태도(r=.13, p<05), 어머니의 외향적 태도(r=.19, p<.01)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형제간의 우호적인 태도는 애정적 태도(r=.28, p<.01)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자율적 태도와는(r=-.15, p<.05) 부적상관을 보였다. 형제간의 반이기적인 태도는 자율적 태도(r=.17, p<.05)와 수용적 태도(r=.18, p<.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형제간의 용감하고 의지력있는 태도는 수용적인 태도(r=.19, p<.01)와 독립심권장 태도(r=.13, p<.05)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형제간의 도와 주는 태도는 애정적 태도(r=.22, p<.01)와 어머니의 외향적 태도(r=.18, p<.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또래간 사회성간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또래간 사회성과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외향적 태도가 또래간의 우호적인 태도와 부적 관계(r=-.13, p<.05)를 보여서 어머니가 외향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C.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형제간 사회성 및 또래간 사회성

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형제간 사회성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형제간의 사회성과의 상

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형제간 사회성은 형제가 둘인 아동의 경우만을 살펴 보았는데 상관이 있게 나온 변인은 아동의 연령과 부모의 교육수준이었다.

〈표 4〉 인구통계학적 제변인과 형제간 사회성 점수의 상관관계

(N=206)

인구통계학적 제변인	형제간 사회성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태도	책임있는 태도	우호적인 태도	반이기적 인태도	용감하고 의지력 있는태도	도와주는 태도	형제간 사회성 총점수
아동의 연령		.19**					.15*
아동의 성		.22**		.18**	-.13*	.20**	
유치원이전교육경험							
부의 교육수준	.13*	.12*					.13*
모의 교육수준	.14*	.16*					.17*
가족구조					-.18*		
주거형태		-.11*			-.14*		
부의 직업수준							

* p<.05 ** p<.01

그러나 하위 요인별로는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태도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r=.13, p<.05)(r=.14, p<.05)높은 점수를 보였고, 책임있는 태도는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r=.19, p<.01), 여아가 (r=.22, p<.01),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r=.12, p<.05)(r=.16, p<.05), 공동주택에 사는 아동이 (r=-.11, p<.05). 용감하고 의지력 있는 태도는 남아에게 (r=-.13, p<.05), 확대가족(r=-.18, p<.01)의 아동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아동(r=-.14, p<.05)에게 높게 나왔다. 도와주는 태도는 여아에게서(r=.20, p<.01)높은 점수가 나왔다.

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또래간 사회성

또래간 사회성과 상관이 높게 나온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또래간 사회성과 상관이 나온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주거형태, 아동의 성이었다.

그러나 하위요인별로는 반이기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는 여아가(r=.27, p<.01) 높게 나왔고,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태도는 유치원이전의 교육경험자(r=-.13, p<.05),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r=.14, p<.05), 확대가족일때(r=.14, p<.05), 공동주택 거주아동(r=-.22, p<.01)일 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용감하고 의지력 있는 태도는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r=.19, p<.01), 공동주택 거주아동(r=-.20, p<.01)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사교적인 태도는 여아가(r=.19, p<.01), 핵가족의 아동이(r=.14, p<.05), 공동주택 거주 아동(r=-.19, p<.01)이 높은 점수를 보였고,

〈표 5〉 인구통계학적 제변인과 또래간 사회성 점수의 상관관계

(N=206)

인구통계학적 제변인	또래간 사회성					
	반이기적 이고책임 있는태도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태도	용감하고 의지력 있는태도	사교적인 태도	우호적인 태도	또래간 사회성 총점수
아동의 연령			.19**			
아동의 성	.27*					.16*
유치원이전교육경험		-.13*				
부의 교육수준						
모의 교육수준		.14*				
가족구조		.14*		.14*	.12*	
가족형태		-.22**	-.20**	-.19**	-.12**	-.17*
부의 직업수준						

* p<.05 ** p<.01

우호적인 태도는 핵가족의 아동(r=.12, p<.05)과 공동주택 거주아동(r=-.12, p<.05)에게 높게 나왔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제간 사회성과 또래간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는 차이를 보인다.

D. 형제의 구성형태, 어머니의 양육태도,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형제간과 또래간의 사회성의 회귀분석

이들 결과들을 토대로 이번에는 아동의 사회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인은 어떤 변인이며, 각 독립변인이 형제간과 또래간 사회성을 설명해 주는데는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형제간 사회성과 또래간 사회성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형제의 구성형태 변인,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인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형제간의 각각의 사회성을 합친 총점에 대한 전체 독립변인의 설명력은 32%였고 유의하게 설명력을 갖는 변수는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β=.52)와 아동의 연령(β=.19)으로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형제간의 총 사회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아동의 형제간 사회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사회성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태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β=.39), 남아가(β=-.32), 수용적 태도는 낮을수록(β=-.28)높은 점수를 보였다. 형제간의 책임있는 태도는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β=.50), 핵가족의 아동이(β=.16) 높은 점수를 보였다. 형제간의 우호적인 태도는 애정적 태도를 받을수록(β=.22), 첫째 아동이(β=-.21), 부의 직업수준이 낮을수록(β=-.20)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형제간의 반이기적인 태도는 여아(β=.

〈표 6〉 〈표 6〉 형제간 사회성에 대한 제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형제간사회성						
	독립변인	적극적이고 호기심많은 태도	책임있는 태도	우호적인 태도	반이기적인 태도	용감하고 의지력 있는태도	도와주는 태도	형제간 사회적태도 총점수
		B(β)	B(β)	B(β)	B(β)	B(β)	B(β)	B(β)
인구통계학적변인	아동의 연령					.81(.17*)	.69(.17*)	1.07(.19*)
	아동의 성	-1.78(-.32***)			.89(.23*)			
	유치원이전 교육경험						.57(.19*)	
	모의교육수준							
	가족구조		.98(.16*)					
	주거형태							
	부의직업수준			-.14(-.20*)				
양육태도변인	애정적태도	.12(.39***)	.15(.50***)	.04(.22**)				.39(.52***)
	자율적태도							
	수용적태도	-.10(-.28**)				.06(.29**)		
	어머니의외향적태도							
	독립심권장 태도						-.04(-.20*)	
형제구성 형태변인	성구성형태							
	출생순위			-.75(-.21*)	-.78(-.20*)	.66(.20*)	-.54(-.19*)	
	연령터울							
	R^2	.33	.31	.21	.15	.22	.22	.32
	constant	13.19	-3.17	12.20	7.59	2.40	6.14	.85

* p<.05 ** p<.01 *** p<.001

23)와 둘째 아동이(β=-.20)높은 점수를 보였다. 형제간의 용감하고 의지력 있는 태도는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받을수록(β=.29), 둘째 아동이(β=.20)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β=.17) 높은 점수를 보였다. 형제간의 도와주는 태도는 독립심권장 태도를 적게 받은 아동이(β=-.20), 유치원 이전 교육경험이 없는 아동이(β=.19), 첫째 아동이(β=-.19),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β=.17)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또래간의 다섯가지 사회성 요인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독립변인을 크게 형제의 구성형태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인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 등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래간 사회성 총점수에 대한 독립변인들

의 설명력은 8%에 불과했으며 유의한 수준에서의 설명력있는 변인은 어머니의 애정적인 태도(β=.22)에서만 나와서 어머니의 애정적 태도를 받은 아동일수록 또래간 사회성의 총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유의한 수준에서 설명력을 갖는 독립변인을 살펴보면 반이기적이고 책임있는 태도에서는 애정적 태도를 받을수록(β=.23), 여아가(β=.22)높은 점수를 보였다. 용감하고 의지력있는 태도는 남아가(β=-.20)혼성의 성구성을 가진 아동이(β=.20)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7〉 또래간 사회성에 대한 제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또래간사회성					
	독립변인	반이기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는 B(β)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태도 B(β)	용감하고 의지력 있는태도 B(β)	사교적인 태도 B(β)	우호적인 태도 B(β)	또래간 사회적태도 총점수 B(β)
인구통계학적변인	아동의 연령						
	아동의 성	2.11(.22*)		-.79(-.20*)			
	유치원 이전 교육경험						
	모의교육수준						
	가족구조						
	주거형태						
	부의직업수준						
양육태도변인	애정적 태도	.12(.23*)					20(.22*)
	자율적 태도						
	수용적 태도						
	어머니의 외향적태도						
	독립심권장태도						
형제구성변인	성구성 형태			.31(.20*)			
	출생순위						
	연령터울						
	R^2	.11	.08	.11	.07	.10	.08
	constant	23.69	18.90	11.14	7.08	11.86	71.77

* $p<.05$

E. 형제간 사회성과 또래간 사회성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형제간 사회성과 또래간 사회성의 구성요인들은 각 요인이 포함하고 있는 문항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지만 연구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명칭을 일치시킨 것이므로, 형제간 사회성과 또래간 사회성의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형제간 사회성과 또래간 사회성의 비교를 위해서 형제간과 또래간의 요인항렬표(부록 1, 2참고)에 따라 공통의 문항만을 뽑아서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들 각 요인에게 동일한 명칭으로 분류되었던 형제간과 또래간 사회성은 용감하고 의지력있는 태도, 우호적인 태도,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태도로서 이들은 공통적인 문항을 뽑아서 그대로 명칭을 붙였고, 또래간에서 반이기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는 반이기적인 태도와 책임있는 태도는 분류하여 공통문항을 뽑았으며, 형제간의 도와주는 태도와 또래간의 사교적인 태도는 다른 명칭으로 분류되었으나 공통으로 포함된 문항의 내용에 따라 도와주는 태도로 명명하여 총문항수가 18개이고 6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형제간 사회성 태도영역과 또래간 사회성 태도영역을 만들어서 이들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용감하고 의지력있는 태도($r=.23$, $p<.005$), 책임있는 태도($r=.22$, $p<.005$), 반이기적인 태도($r=.20$, $p<.005$), 도와주는 태도($r=.13$, $p<.05$)순으로 6개의 태도중 4개의 태도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형제간과 또래간 사회성의 총점간의 상관도 낮지만 정적 상관을 보였다($r=.19$, $p<.01$). 그러나 우호적인 태도와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태도에서는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특히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태도에서는 거의 상관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았다.

1) 형제간의 구성형태중 성구성의 효과는 형제간의 사회성에서만 부분적으로 나타나서 우호적인 태도와 도와주는 태도에서 윗형제의 성이 여아인 경우가 남아인 경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것은 윗형제가 여아인 경우에 윗형제가 남아인 경우보다 그들에게 형제를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주위사람들이 더 기대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형제간 사회성에서 성구성의 효과는 아동의 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또래간의 사회성에서는 성구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또래간 사회성은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형제간 사회성에서는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반이기적인 태도와 도와주는 태도에서는 출생순위가 첫째인 아동에게서, 용감하고 의지력있는 태도에서는 출생순위가 둘째인 아동에게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에서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형제간에 기대되는 역할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윗형제는 교사로서, 동생은 학습자로서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연령터울에 따른 효과는 형제간 사회성 및 또래간 사회성 모두에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령전 아동 형제간의 연령터울을 2년 미만과 3년 이상으로 분류하여 본 Abramovitch외 2인의 세차례에 걸친 연구(1979, 1980, 1981)와 후속 연구(Abramovitch, Corter, Pepler & Stanhope, 1986)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서 학령전 아동이 그들 형제와 갖는 연령터울은 3년 정도의

적은 터울에서는 아동의 사회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연령터울이 많이 떨어져있는 형제를 가진 아동에 대한 연구가 기대된다.

4) 이밖에도 성구성과 출생순위의 상호작용의 효과는 형제간의 사회성중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태도에서 누나와 남동생의 성구성을 가진 아동중에서 나왔는데 남동생에 해당되는 아동이 누나에 해당되는 아동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또래간 사회성의 성구성과 출생순위의 상호작용의 효과는 반이기적이고 책임있는 태도와 용감하고 의지력있는 태도에서 나왔다. 즉 반이기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는 아동의 출생순위가 첫째인 아동중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성구성이 혼성인 경우에 나타난 출생순위의 효과도 아동의 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남아보다 여아에게 반이기적이고 책임있는 태도에 높은 점수를 보였다. 용감하고 의지력있는 태도에서는 오빠와 여동생의 성구성을 갖는 아동중에서 오빠에 해당되는 아동이 여동생에 해당되는 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형제간 사회성 및 또래간 사회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형제간 사회성과 비교적 정상관을 보이며 특히 애정적 태도와 수용적 태도를 받은 아동일수록 형제간 사회성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또래간 사회성은 어머니의 외향적 태도와 우호적인 태도의 부적 관계를 제외하면 거의 유의수준에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6) 인구통계학적 변인중 형제간 사회성과 또래간 사회성 모두에서 효과적인 변인은 아동의 성이었다. 형제간 사회성에서는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태도와 용감하고 의지력있는 태도는 남아에게, 책임있는 태도와 도와주는 태도는 여아에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또래간 사회성에서의 성효과는 반이기적이고 책임있는 태도와 사교적인 태도에서 나왔는데 모두 여아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성의 효과는 또래간보다 형제간에서 더 강하게 나왔는데 이것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또래집단의 교사보다 더 엄격하게 성역할에 적합한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동일한 연령으로 구성된 또래집단에서 여아들은 남성적인 행동을 더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또래간 사회성에서 주거형태와 가족구조의 효과가 나타나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아동과 핵가족의 아동이 더 높은 또래간 사회성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아동보다 비슷한 또래와 접촉할 기회가 많고, 아동의 대인관계가 확대가족에 비해 한정되어 있는 핵가족의 부모가 일찍부터 아동이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격려해주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사료된다.

7) 중다회귀분석 결과 형제간 사회성에서는 형제의 구성형태 변인중 아동의 출생순위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서 우호적인 태도, 반이기적인 태도, 도와주는 태도 등은 출생순위가 첫째인 아동에게서, 용감하고 의지력있는 태도는 둘째인 아동에게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래간의 사회성에서는 성구성의 효과가 용감하고 의지력 있는 태도에서만 나타나서 혼성의 성구성을 가진 아동이 동성을 가진 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인은 또래간의 사회성보다 형제간의 사회성에서 더욱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특히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형제간과 또래간의 사회성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많은 아동일수록 더욱 형제간의 사회성에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아동의 성은 형제간과 또래간의 사회성 모두에서 영향력을 갖는 변인으로 나타나서 성역할개념에 따라 아동의 성에 적합한 행동이 형제간 사회성과 또래간 사회성에서 모두 나타났다.

8) 형제간 사회성과 또래간 사회성의 상관분석 결과 용감하고 의지력있는 태도, 책임있는 태도, 반이기적인 태도, 도와주는 태도 등에서 정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형제간의 사회성은 어머니가, 또래간의 사회성은 교사가 각각 응답한 결과이므로 평가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진 평가도구를 가지고 같은 응답자(예를 들면 관찰자)가 아동이 나타내는 형제간 사회성과 또래간 사회성을 평가하여 비교연구 한다면 보다 더 긍정적인 상관이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형제의 성구성과 출생순위가 형제간 사회성에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형제의 성구성형태를 다시 세분화하여 조사한 결과 동성간과 혼성간에서도 각각 아동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형제의 성구성형태는 세분화하여 살펴볼 때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출생순위의 효과는 형제간 사회성에서만 나타나서 아동의 성의 효과와 함께 또래간보다 형제간에서 더 엄격한 출생순위에 따른 역할기대가 이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또래간보다는 형제간 사회성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나서 형제간 사회성 발달 및 형제간 상호작용에 있어 부모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었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변인중 아동의 성은 아동의 형제간과 또래간 사회성 모두에서 중요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동주택에 사는 아동이 단독주택에 사는 아동보다 또래간 사회성이 높게 나타나 아동의 사회성에 있어 아동의 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또한, 형제간 사회성은 또래간 사회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므로 결과의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가 연구자의 연구능력의 한계와 연구대상자의 지역적 한계로 아동의 사회적 속성이 점부 제시되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사회성중 형제간 사회성은 어머니가, 또래간 사회성은 교사가 각각 평가하였으므로 어머니와 교사가 갖는 평가의 기준이 각기 다르고, 형제간과 또래간의 사회성이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지 않아서 공통적인 문항만을 뽑아서 형제간 사회성과 또래간 사회성간의 상관을 밝혀 보았기 때문에 형제간 사회성과 또래간 사회성의 상관성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이상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추후에는 아동의 형제간과 또래간 사회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인물에 의한 평가가 동일한 평가도구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형제간 사회성과 또래간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형제의 구성형태가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의의있는 변인을 밝혀내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아동의 구성형태가 아동의 사회성을 많이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많은 아동연구의

결과들이 아동의 발달에 형제가 미치는 영향력이 부모가 미치는 영향에 비해 적을 지는 몰라도 형제는 성인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중요한 여러경험을 제공해 주는 존재로 강조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형제가 아동의 발달에서 중요한 영향을 갖은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를 밝혀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옥자(1987).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동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상희(1983). 학령전 아동의 형제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남정자(1985).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범신(1986).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봉연.이순형(1983). 발달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출판부.

심숙희(198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기도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은섭(1987). 놀이와 사회성 발달과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원영(1982).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연관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Abramovitch, R., Corter, C. & Landon, B. (1979). Sibling interaction in the home. Child Development, 50, 997-1003.

Abramovitch, R., Corter, C. & Pepler, D. J. (1980). Observation of mixed-sex sibling dyads. Child Development, 51, 1268-1271.

Abramovitch, R., Corter, C., Pepler, D. J. & Stanhope, L. (1986). Sibling and peer interaction: A final follow-up and comparison, Child Develpment, 57, 217-229.

Baskett, L. M. & Jonson, S. M. (1982). The young child's interactions with parents versus siblings: A behavior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53, 602-643

Berndt, T. J. & Bullet T. N. (1985). Effect of sibling relationships on preschoolers' behavior at home and at school, Developmental Psycology, 21 (5),761-767.

Binger, J. J. (1974). Second born's discrimination of sibling role concepts, Development al Psychology, 10, 564-573.

Bossard, James H. S. & Boll. E. S. (1966). The psychology of child devolopment, New York: Harper International Ed.

Bowerman, C. E. & Dobach, R. M. (1974). Structual variation in intersibling affe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ruary, 48-54.

Brody, G. H., Stoneman, Z. & Mackinnon, C. E. (1982). Role asymmetries in interactions among school-aged children, their younger siblings, and their friends, Child Development, 53, 1364-1370.

Bryant, B. K. & Crockenberg, S. B. (1980). Correlates and dimensions of prosocial behavior: A study of female siblings with the mothers. Child Development, 51. 529-544.

Cicirelli, V. C. (1972). The effect of sibling relationship on concept learning of young children thought by child teacher. Child Development, 43, 282-287.

Dunn, J. & Kendrick, C. (1981). Social behavior of young siblings in the family context: Difference between same-sex and different-sex and not opposite-sex dyads. Child Development, 52, 1265-1273.

Ernst, C. & Angst, J. (1983). Birth order. New York: Spring-Verlag.

Gesell, A. L., Ilg, F. L. & Ames, L. B. (1977). The child from 5 to 10, New York: Harper & Row.

Hatch, J. A. (1987). Peer interac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Child Study Journal, 17(3).

Hurlock, E. B. (1978). Child development,(6th ed.), Tokyo: McGrew Hill.

Irish, D. P. (1964). Sibling Interaction: A neglected aspect in family life research. Social Forces, 42, 279-288.

Jacob, B. S. & Moss, H. A. (1976). Birth order and sex of sibling as determinant of mother-infant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47, 315-322.

Jiano, S., Ji, G. & Jing, Q. (C. C. Chig) (1986). Comparative study of behavior qualities of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7, 357-361.

Knight G. P. (1982). Cooperative-competitive social orientation: Interaction of birth order with sex and economic class. Child Development, 53, 664-667.

Lamb, M. E. (1978). Interaction between eighteen month olds and their preschool aged siblings. Child Development, 49, 51-59.

Lamb, M. E. (1978). The development of sibling relationship in infancy: A short term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49, 1189-1196.

Minnett, A. M., Vandell, D. L. & Santroc, J. W. (1983). The effect of sibling status on sibling interaction: Influence of birth order, age spacing, sex of child, and sex of sibling. Child Development, 54, 1064-1072.

Mussen, P. H., Conger, J. J. & Kagan J. (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International Ed.

Pepler, D. J., Abramovitch, R. & Corter, C. (1981). Sibling interaction in the home: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52, 1344-1347.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Rubin, K. H. & Ross, H. S.(Eds.)(1982). Peer relations and social skills in childhood. New Your: Springer-Verlag.

Samuels, H. R. (1980). The effect of an older sibling on infant locomotor exploration of a new environment. Child Develop-

ment, 51 607-609.

Slee, P. T. (1986). The relation of temperment and other factors to children's kindergarten adjustment.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7(2). Winter.

Smart, M. S. & Smart, R. C. (1967). Child development and relationships. New York: Macmillan.

Snow, M. E., Jacklin, C. N. & Maccoby, E. E. (1981). Birth order differerces in peer sociability at thirty-three months. Child Development, 52, 589-595.

White, B. L. (1975).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부록 1. 형제간 사회성 평가도구에 대한 요인행렬표

	형 제 간 사 회 성						
문항번호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태도	책임있는 태도	우호적인 태도	반이기적인 태도	용감하고 의지력 있는태도	도와주는 태도	Communality
15	.71	.14	−.13	.11	−.08	.16	0.68
22	.45	.27	.04	−.08	−.17	.17	0.50
25	.57	.05	−.04	−.07	.04	.14	0.40
26	.64	.02	.19	.04	.09	−.04	0.49
30	.54	.04	.35	−0.9	−.11	−.04	0.51
36	.45	−.10	−.05	−.16	−.15	.07	0.49
38	.44	.07	.32	.06	.29	−.13	0.47
4	.01	.67	.13	−.06	.02	.02	0.54
13	.26	.42	.08	−.10	.18	.19	0.47
17	−.07	.63	.06	.14	.01	.28	0.51
28	.27	.51	.22	.38	−.01	−.17	0.65
29	.22	.56	−.03	−.05	.10	.09	0.42
32	.22	.53	−.05	.31	.21	−.01	0.55
1	−.06	.03	.65	.08	−.13	−.01	0.50
3	.31	.12	.49	.02	.07	.02	0.40
12	.06	.11	.74	.21	.12	.14	0.72
20	.13	.03	.60	.12	−.02	.10	0.48
9	−.12	.05	.10	.56	.02	−.08	0.54
16	−.08	.01	.34	.61	−.07	.03	0.60
21	.10	.01	.07	.45	.02	0.00	0.24
33	0.12	.04	.15	.43	−.02	−.02	0.35
5	.07	.23	−.20	−.15	.35	−.04	0.46
6	.07	.34	.04	−.08	.38	.19	0.34
14	−.06	.07	−.01	.12	.67	.03	0.64
18	.08	.17	.37	.07	.09	.54	0.55
19	.19	.20	.00	−.07	.08	.61	0.52
23	.27	.08	.29	.02	−.28	.38	0.61
전체변량(%)	30.2	15.4	11.9	8.4	6.5	5.8	78.2(%)
공통변량(%)	38.6	19.7	15.2	10.7	8.3	7.4	100(%)
EIGENVALUE	6.04	3.09	2.38	1.69	1.29	1.16	15.65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35

부록 2. 또래간 사회성 평가도구에 대한 요인행렬표

	또래간 사회성					
문항번호	반이기적이고 책임있는 태도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태도	용감하고 의지력 있는태도	사교적인 태도	우호적인 태도	Communality
7	.57	−.02	.05	.21	.26	0.51
8	.64	−.18	−.15	.14	.00	0.60
9	.56	−.22	−.04	.25	.01	0.63
10	.55	−.26	.14	.15	.23	0.56
16	.65	−.16	−.03	−.01	.00	0.68
17	.51	.21	.21	.22	−.16	0.67
28	.75	−.01	.03	.15	−.03	0.65
29	.50	.27	.29	−.06	.11	0.78
31	.89	.01	−.03	.07	−.01	0.78
32	.83	.07	.06	.13	.06	0.56
33	.57	.19	−.02	.02	.06	0.64
39	.66	−.01	.13	.11	.01	0.66
13	.31	.50	.20	.16	.01	0.56
15	−.01	.54	.06	.21	.17	0.43
19	−.19	.56	.27	.19	.19	0.65
22	.03	.61	.01	.09	.02	0.40
25	−.06	.38	.14	.09	.18	0.29
36	−.03	.70	.01	−.07	.09	0.54
37	−.29	.59	.28	.06	.08	0.61
38	.06	.54	.25	.25	.14	0.47
4	.30	.06	.60	.13	.16	0.54
5	−.24	.33	.52	.20	.01	0.59
6	.12	.06	.70	.08	.05	0.53
14	−.09	.12	.49	.06	−.00	0.40
24	.04	.24	.36	−.03	.09	0.23
12	.21	.30	.16	.45	.38	0.57
18	.19	.21	.30	.55	−.01	0.51
27	.25	.25	.04	.52	.22	0.46
1	.32	−.00	.11	.36	.45	0.54
2	−.17	.39	.20	.01	.63	0.65
3	.02	.28	.04	.16	.74	0.71
전체변량(%)	40.1	25.2	7.3	6.8	6.1	85.5(%)
공통변량(%)	46.9	29.5	8.5	8.0	7.1	100(%)
EIGENVALUE	8.61	5.43	1.57	1.46	1.31	18.38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35